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개발·금호타이어 이전하나...

평동산단 주변 개발제한 지정에 설왕설래

市, 난개발 문제 해소 차원 일축

광주 평동산업단지 주변 약 140만㎡ 땅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자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설이 나오면서 광주시가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대상지 또는 '광주형일자리' 주거단지 후보지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모든 설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축·송촌·용동 일부 지역 139만5553㎡(약 42만평)를 이달 11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생산녹지·자연녹지 지역이 섞인 땅으로 평동 1차 산업단지 경계와 맞닿아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행위가 금지된다.

광산구는 올해 8월 광주시 요청으로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단 관련 업종 입주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자는 취지를 담았다. 향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 보상가를 높이는 행위를 차단해 사회적인 매출 비용을



광주 평동산단 주변 140여만㎡(약 40만평) 땅이 최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등 각종 설이 부동산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사진은 광산구 평동산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줄이는 기능도 포함됐다.

부동산업계는 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선운지구 등 신도심과 지적인 입지에 주목해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을 내놓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대상지와 '광주형일자리' 주거단지 후보지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소문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광산구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광주시 투자 통상과는 개발 관련 풍문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평동산단 주변을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때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을 검토는커녕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주거단지 후보지라는 추측 또한 낭설이라는 입장이다. 주거단지 조성에 10년 정도가 필요한 만큼 오는 2021년 예정인 자동차 양산 시점에는 LH와 광주도시공사가 시행한 기존의 광주지역 행복주택 16개 단지 4521세대 가운데 비어있는 800여 세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단지 조성이 시급한 과제가긴 하나 빛그린산단과 멀리 떨어진 평동산단 주변은 후보지로 검토한 적조차 없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은 난개발이라는 도시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나 광주형일자리 주거단지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北, SLBM 탑재 신형 잠수함 진수 가능성

CNN, 신포조선소 부두에 인공위성 감시차단 구조물 설치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진수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미들버리 국제핵연료연구소와 상업용 위성 운용사 플래닛랩스가 이날 촬영한 북한 신포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신형 잠수함의 진수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부두에는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그물망이 덮였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핵연료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은 새 잠수함을 숨기기 위해 부두에 구조물을 세웠다"면서 "이는 잠수함이 이미 진수됐거나 곧 진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쉬머러 선임연구원도 새 구조물과 그물망이 잠수함과 이동식 기중기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작업은 새 잠수함의 진수

를 위한 준비이지만 (진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NN에 앞서 일본 NHK 방송도 지난 20일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신포조선소를 촬영한 미들버리 국제핵연료연구소의 이날 3일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선소 앞 부두에 최소 13개의 기둥이 설치되고 차량 등의 활동이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2일자 사진에선 부두 일부와 바다에 걸친 건조물이 새로 설치됐고, 19일 사진에는 기존 북한 잠수함보다 훨씬 큰 100m 길이의 구조물이 찍혔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면서, 이 잠수함이 "동해 작전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 국방부가 1년여 전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개조형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일외교장관회담 27일 뉴욕서 개최

강경화-모테기 日 외무상 첫 만남...한미일 회담은 없을 듯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夫)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후(이하 현지시간·한국시간 27일 오전)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회담한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두 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 11일 모테기 외무상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지난달 21일 베이징 중일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열린 이후 한달여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두 장관은 상건례를 겸한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일 양국간 입장차가 현격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장관은 내달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를 파견하는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사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25일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유엔총회 계기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일 협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3국 외교장관 회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통상 미국 주도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것을 고려하면 미국이 현재의 한일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광주 에이스페어'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

26~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9 광주 에이스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방송·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VR/AR/ICT 등 다양한 미디어·문화콘텐츠가 전시돼 사업 상담과 해외 수출, 투자 협력 등을 모색하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32개국 410개사 660개 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전시회와 라이선싱 상담회, 학술행사, 특별·부대행사 등도 함께 치러진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최신 콘텐츠와 신기술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며,

관람객들이 첨단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미디어·문화콘텐츠 제작 주요 방송사와 캐릭터·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문화콘텐츠 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국외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와 에콰도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 175명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수출 상담회와 투자협약을 진행한다.

'문화콘텐츠 잡페어(2019 ACE Job Fair)' 행사도 동시에 개최돼 국내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 교류의 기회를, 예비 취·창업자에게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문화방송이 동아시아권 5개국 주요 방송사와 함께 만드는 서바이벌 오디오 프로그램 '아시아 탑밴드' 쇼케이스와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 보드게임대회, 유명BJ초청 무대이벤트, 유명 애니메이션 주인공 목소리를 연기한 성우의 시연회, 엑스가리온 팬미팅 등도 마련돼 다양한 재미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체 법적 제도화

행안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 법률 입법 예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자치분권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1>투자</h1> <h2>7억원, 2명</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급매물·경매물건 기간 - 2년 이내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p>법적보장.010-3605-5000</p>
------------------------------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부안곰소 토지매매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265-5외 14필 (계획관리지역)

- 줄포·IC·10분거리 해안탐방도로 (현 공사중)
- 곰소염전인접, 내소사 10분, 줄포생태공원 10분
- 조망 : 앞 - 곰소만바다 뒤 - 내변산국립공원

매매가 평당 35만원
면적 약 2만평 분할 가능

리조트·숙박시설·근생 모든 업종 개발 가능

문의 010-5464-4448(주인)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주택·아파트

- 농성초교 옆 월산동 2층 주택 수리 요함 땅 154㎡ 집 132㎡ 9500만원
- 아파트 월산동 제일파크 12층 67㎡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백
- 광주대학 부근 금호아파트 12층 151㎡ 올리모델링 은행 1억6800 매도 2억5500

투자·매도·교환

- 강진군 도암면 계리리 땅 4021㎡ 빌라·대형 중국집 적합 은행 2억 매도·교환 5억천
- 무안 문림면 영산강정 땅 48900㎡ 펜션 14개와 수영장 토지 2천여평은 요양병원·시설 적합 휴게소·무인텔 적합 교환가능 32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공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은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사할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은 8억
- 목포대 인근 무안군 정계면 도림리 680㎡ 전원주택 적합 4300만원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유등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4억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입 30평(공실)과 16실 월 510 매도 14억
- 북구 임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청정지역 땅 1372㎡ 건평 269㎡ 펜션·민박 등 적합 신고 7억5천 경관 최고 은행 2억7천 실물사까지 3km 4억6천
- 서구 치평동 대현건물 중 1층 264㎡ 공실임 은행 8억 교환가능 19억

특급물건

- 곡성군 목사동면 계획관리지역 등 답과 임 234044㎡ 다용도 사용가능 10억6200
- 강진군 성전면 상임지 등 4240㎡ 강진산단에서 1km 소형 APT 등 적합 11억5천
- 영광 연산면 바닷가 땅 2466㎡ 펜션 2동 은행 등 2억 급매 3억6천
- 요양시설 영광 병성면 땅 5416㎡ 1층 477㎡ 중추기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대동 상임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1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농업회사법인 나주농산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보관

■ 콘크리트 신축건물 20평~23평 등 (총 400평)

배·사과·양파 등 임대보관

● 신년서비스 ● 임대료 저렴하게 드림

위 치 나주시 문평면사무소 뒤
연락처 010-3993-3022